

시론

시장·군수 선출, 정당보다 '능력'을 봐야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前 대한지리학회장

우리는 여러 유형의 공직자를 직접선거로 뽑는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광역시장·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시장·군수), 광역의원, 시군구의원 등이 그들이다. 이 중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공직자를 뽑아야 나의 일상이 편할까. 필자는 시장과 군수라고 본다. 시장·군수는 주민 삶과 직결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쓰레기 수거, 시내버스 노선 결정, 공원 청소와 관리, 공용 주차장 설치와 관리 등등 수많은 생활행정 최종 결정권자다. 지역발전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한다. 생활행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반면에 지역발전정책 수립과 집행은 만만치 않다. 어떤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지역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시장·군수를 뽑아야 하는 이유다. 6월 지방선거에서 뽑을 시장·군수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간판·당선'이란 등식이 고착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시장·군수를 뽑을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정당보다 '능력'을 봐야 한다. 능력 있는 시장·군수를 뽑아야 현재의 주민 일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곳에서 살아갈 후속세대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민주당 텃밭에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정당 후광효과 덕분에 시장·군수가 된 경우가 상당수다. 이른바 '묻지마' 투표 결과다. 하지만 능력을 무기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이 정당에 가입한 후 뽑아줘 가능했다. 그중에는 지역발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적 주목을 받은 시장·군수가 몇 명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전북 신민 임실군수다. 그는 제6회(2014), 제7회(2018), 제8회(202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현재 3선째다. 옥정호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만들어 오지인 임실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임실치즈' 전국화는 심 군수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군정의 산물이다. 두 번째 사례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다. 2006년 7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군수가 됐고, 제5회(2010)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이 됐다. 제7회(2018)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반면 제8회(2022)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당선됐다. 최대 업적은 뭐라 해도 '햇빛연금'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권장하는 '햇빛소득마을' 모델도 신안이 원조다. 인기 관광지로 부상한 '파플섬(안좌면)'도 만들었다. 세 번째 사례는 노관규 순천시장은이다. 제4회(2006)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열린우리당 후보를 꺾었다. 순천정원박람회도 이때 계획됐다. 제5회(2010)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제8회(2022)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돼 회제가

됐고, 2023순천만정원박람회를 성공시켰다. 그의 능력과 리더십이 순천을 우리나라 '생태도시' 전형(典型)으로 만들었다. '생태도시'란 새로운 도시브랜드는 순천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자원이 됐다. 순천시민이 정당에 가입한 후 뽑아줘 가능했다. 네 번째 사례는 이성웅 전 광양시장이다. 제3회(2002)와 제4회(2006)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과 민주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제5회(2010)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과 같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대 업적은 교육 경쟁력 제고였다. 초·중·고 학생 학력(學力) 증진에 매년 100억 이상 투입했다. 그 결과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 평가에서 초등학교는 전남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광양제철고교가 포함제철고교보다 높았다. 다섯 번째 사례는 강진원 강진군수다.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됐다. 제6회(201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고, 제8회(202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전남 22개 시군 중 경쟁력이 꼴찌에서 5번째인 강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많이 추진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강진푸스, 합계출산률 전국 2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반값여행' 등은 성공적인 군정 수행의 훈장이다. 반값여행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국책사업(지역사랑휴가지원)으로 발전했다. 시장·군수 능력에 따라 주민 일상 뿐만 아니라 지역 미래가 좌우된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 '능력'을 보고 시장과 군수를 뽑자.

社說

유네스코 재인증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독보적 위상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가 무등산권의 높은 가치를 다시 인정했다. 2018년 최초 인증 이후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재인증까지 연속 성공한 것이다.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상 모델로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다. 차근차근 내실을 기해온 운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또 한번 공식 입증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행정통합을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입석대를 비롯한 추상절리, 장불재, 적벽, 서유리 공룡화석 등을 망라해 무등산권은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한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자연·인문·사회·역사·문화·전통 등이 결합해 있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을 충족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뛰어난 경관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하고 희귀하다. 광주시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질유산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은 선부르지만 다음엔 초광역 메가시티로 재인증에 나선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하는 것이다. 명소 보전을 위한 파트너십도 두텁게 해야 한다. 생태자원을 확보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보존과 활용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지정 취지대로 지역사회와 주민이 이해당사자로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25년 경북 동해안까지 모두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등산권은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특성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 지리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무공무진한 가치를 전파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자연유산으로 손꼽히고 있다.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력하길 바란다.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작 지역경제 활력도 기대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광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곳곳에서도 선불카드·지역화폐를 수령하기 위한 발걸음이 잇따랐다. 차량 기름값으로,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비 등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너도나도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다음달 8일까지는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45만원으로, 광주는 비수도권에 해당돼 1인당 5만원씩 추가된다. 전남도내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을 더 우대받아 최대 6만원까지 늘어난다. 첫 번째 주는 혼잡도를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를 달리했다. 그런데 미처 요일제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2차에 해당하는 일부 시민들이 다시 돌아가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다르게 선불카드 색깔을 짙은 남색으로 통

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지급 시기를 구분한 게 또 다른 낙인찍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로, 광주는 기본 10만원에 더해 5만원을 더 받는다. 지원금은 8월까지 소진해야 하며 이후론 사라진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이용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안내 문자를 시청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주유소를 포함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했다.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너무 올랐다. 비싸다. 구매에 부담이 크다. 치솟는 기름값에 높은 물가까지 서민들은 가슴에 단비나 닦아달라며 반긴다. 동네상권은 소비 진작 효과를 바라고 있다. 팍 막힌 지역경제에 숨통을 터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기고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대한민국에 새 역사가 쓰인다. 7월 1일, 1호 광역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40년 만에 다시 하나 되는 결단이다. 단 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다. 수도권 1극을 넘어 전남·광주를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 5극 3축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험이자 대한민국 미래 모델의 출발이다. 전남·광주는 결합했다. 그러나 세계는 분열과 충돌로 흔들린다.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은 공급망을 흔들고 에너지와 물가를 자극한다. 기후위기는 폭우와 가뭄, 이상기온으로 일상을 압박한다. 피해는 늘 그렇듯 가장 취약한 곳에 먼저, 더 크게 닿는다. 이제 시선은 멈추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한다. 2028년 COP33, 그리고 G20 정상회의. 전남·광주는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손에 쥐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COP 유치는 지역의 오랜 과제다. 온

전남광주특별시를 글로벌 중심도시로 -COP33·G20이 열 전남·광주의 새로운 시대

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과 자원 확대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모든 의제가 모이는 자리다. 그 무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남·여수는 2009년 처음 문을 두드렸다. 16년의 시간이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에 두 차례 양보하며 기회를 미뤘다. 대신 준비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하며 '여수'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올해 4월, 다시 문이 열렸다. 기후주간 개최로 1만7천명이 모였다. 64개 콘텐츠로 남도의 멋과 맛을 세계에 알렸다.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는 시작됐고, 흐름은 이어진다. 9월, 2026 여수세계박람회로 그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진다. 인도의 포기로 판이 바뀌었다. COP33은 아시아-태평양 개최가 유력하다. 가능성은 커졌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의 결단이다. G20 정상회의 역시 분명하다. 대한민국 개최가 이미 결정됐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 복합위기를 다루는 핵심 무대다. 정상외교의 중심이다.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열 것인가의 문제다. 전남·광주는 그 답을 제시한다. 지방 개최, 새로운 국가 전략이다. 답은 이미 증명됐다. 경주는 APEC을 해냈다. 역사와 전통, 기존 인프라, 부족한 숙박은 크루즈로 보완했다. 방식은 달랐고, 결과는 좋았다. 전

남·광주는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인권, 평화, 민주주의, 에너지, K-컬처. 왜 이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다. '새롭게, 다르게'. 지금은 그 구상을 현실로 만드는 단계다. 이제 인권과 평화,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세계는 G20에서 에너지 전환과 인권, 평화를 함께 다룬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설 조건을 갖춘 곳, 전남·광주다. 광주는 실천의 도시다.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지금도 살아 있다. 인권과 연대의 가치로 이어진다. 주먹밥의 나눔은 세계가 공감하는 인어가 됐다. '소년이 온다'는 그 정신을 세계로 확장시켰다. 전남은 전환의 현장이다. 풍부한 일사량과 해풍, 44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이미 시작됐다. 탄소중립 시대, 답을 만드는 곳이다. 행정통합은 이미 현실이 됐다. 이제 그 위에 세계를 엮을 시간이다. 2028년 COP33, G20 정상회의. 흔치 않은 기회다. 준비는 충분하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남은 것은 실행이다. 수도권 1극을 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그 전환의 축이다. COP33과 G20,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글로벌 중심도시로,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독자투고



최근 경기도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는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18년에 상영된 영화 '목격자'에서는 주인공 남성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쉽게

침묵 속 비극 '관계성 범죄'...더 이상의 안일함은 없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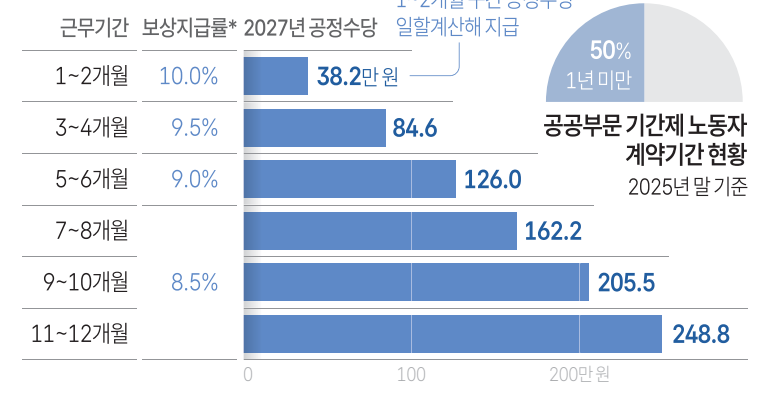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혹시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선택 개입하기 어려운 마음이 담담하게 이어진다. 그 장면을 보고 나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교육과 홍보, 유관기관 협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와 스마트 기기 연동 등 제도적 장치 역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제 상황훈련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계성 범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주변의 인식과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나 어색한 신호들이 그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마 벌일 있겠어"라는 생각이 상황을 지나치게 만들 수도 있다. 관계성 범죄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 과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수정·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그래픽 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2027년 도입,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대상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



\* 2026년 최저임금의 118%(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인 254.5만 원 대비

연말뉴스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조끼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연말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Fax. Includes sections for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and 광고문의.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